

#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구현영\*, 임형석\*\*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Hyun-Young Koo(hykoo@cu.ac.kr)\*, Hyeong-Seok Im(sinsil@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하기 위해 두 도시의 1개 전문대학 간호과와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는 2~4학년생 420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기술 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순 상관 관계가 있었다.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였고, 26.8%를 설명하였으며,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 및 성별이었고, 31.9%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 등의 영향 요인을 기초로 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자존감 | 자기효능감 | 대인관계 | 전공만족도 | 임상실습만족도 |

###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and compar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420 nursing students in two cit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19.0 progra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correlated with self-esteem,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atisfaction of major.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associate nursing students was satisfaction of major, and this factor accounted for 26.8% of the variance i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bachelor nursing students were satisfaction of maj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gender, and these factors accounted for 31.9% of the variance i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is influenced by satisfaction of majo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refore, when nursing interventions are developed to improv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se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 keyword : | Self-esteem | Self-efficacy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Satisfaction of Major |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전문직관을 가지고 임상 실무를 충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다[1]. 간호대학생이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 습득은 물론 알고 있는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이러한 훈련 과정이 임상실습을 통해 진행되는데, 임상실습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 가치관과 태도,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학습하게 한다[2].

임상실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은 임상 상황에서 실습 장소로의 전이에 혼란스러워하고[3], 새로운 환경과 예상하지 못한 문제, 간호대상자 및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4].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과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습과정에 잘 적응하여, 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임상실습만족도는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평가 등 임상실습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의미한다[2]. 즉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임상실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하여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가 실현되어 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5],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과 임상실습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수가 4년제 대학교의 두 배 이상 되어 병동실습을 학습목표에 맞춰 진행하기 어렵고[2], 실습기관 선정과 실습지도자 확보 등 실습 운영과 지도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6], 전문대학생의 실습 전 사전교육과 교육환경, 실습내용과 실습지도의 개선으로 실습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7]. 선행 연구에서도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는 학제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3년제 간호대학생보다 높았고[8], 4년제 간호대학생

의 임상실습만족도가 3년제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7].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외적 요인의 관리 뿐 아니라 내적 요인의 강화를 통한 향상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된 내적 요인으로 심리적 특성인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자존감은 자신을 중요하고 유능하다고 믿으며,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정도로[9], 높은 자존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진행 중인 행동 뿐 아니라 미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10].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 문제 행동을 조절하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임상실습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고[11],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다[12].

간호대학생은 임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간호대상자와 가족 및 의료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경험한다[4]. 특히 유교적 가치관에 토대를 둔 우리 문화에서는 자기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므로, 대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13]. 대인관계는 개인이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인간관계의 양상을 말하는데[13], 간호대학생의 높은 대인관계 능력은 임상실습에서 간호대상자 및 의료인과도 갈등 없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우므로, 높은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무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관찰하고, 간호학 전공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이루어지므로, 간호학 전공 분야가 진로나 직업에 대한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갖고 있으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높을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에 대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즐거운 정도와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달성되었음을 지각하는 정도를

전공만족이라고 하며[14],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과 함께 교과 내용, 교수·학생 관계, 사회적 인식,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된다[15]. 선행 연구[7]에서도 간호대학생은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는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제별로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학제에 따라 파악하고 비교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간호대학생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하여 비교한다.
- 둘째,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한다.
- 셋째,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임의표집으로 두 도시의 1개 전문대학 간호과와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2~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Multiple regression을 위한 표본수가 G-Power 3.1.2 program을 이용했을 때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5개에서 138명이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3년제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이 각각 180명 이상 되도록 총 430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다.

2009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도시 두 곳의 1개 전문대학 간호과와 2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2~4학년생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주었고,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학습용 펜)을 하였다. 누락되거나 응답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한 420명(97.7%)을 최종 대상으로 하여 자료분석하였다.

### 2. 연구도구

#### 2.1 자존감

자존감은 전병재[1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Rosenberg[17]의 자존감 도구를 간호학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간호대학생이 응답하기 쉽도록 일부 문장 표현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16]에서 Cronbach's  $\alpha$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8]이 개발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 도구를 홍혜영[19]이 변안한 17문항을 간호학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간호대학생이 응답하기 쉽도록 일부 문장 표현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7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19]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2.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문선모[20]가 번안한 Schlein과 Guernsey[21]의 대인관계 도구를 간호학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간호대학생이 응답하기 쉽도록 일부 문장 표현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만족도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의 25문항으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20]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다.

### 2.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하혜숙[15]이 작성한 도구를 간호학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간호대학생이 응답하기 쉽도록 일부 문장 표현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 일반만족 5문항, 교과만족 5문항, 관계만족 3문항, 인식만족 6문항, 진로만족 3문항의 22문항으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15]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다.

### 2.5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이숙재[22]가 개발하고 이점덕[23]이 사용한 도구를 간호학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간호대학생이 응답하기 쉽도록 일부 문장 표현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4문항, 실습환경 4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의 20문항으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23]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 통계방법으로 분석하였고, 학제별 대상자의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정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년제 간호대학생은 남학생이 20명(8.1%), 여학생이 226명(91.9%)이었고, 20세 이하가 111명(45.1%), 21세가 92명(37.4%), 22세가 14명(5.7%), 23세가 12명(4.9%), 24세 이상이 17명(6.9%)이었다. 2학년이 121명(49.2%), 3학년이 125명(50.8%)이었고, 성적이 상위 30% 미만이 86명(35.0%), 중위 30%~70%가 128(52.0%), 하위 30% 미만이 32명(13.0%)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127명(52.0%), 없는 경우가 117명(48.0%)이었고,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74명(70.7%),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명(24.4%),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12명(4.9%)이었다.

4년제 간호대학생은 남학생이 8명(4.6%), 여학생이 166명(95.4%)이었고, 20세 이하가 15명(8.7%), 21세가 68명(39.3%), 22세가 59명(34.1%), 23세가 13명(7.5%), 24세 이상이 18명(10.4%)이었다. 3학년이 91명(52.3%), 4학년이 83명(47.7%)이었고, 성적이 상위 30% 미만이 55명(32.0%), 중위 30%~70%가 87(50.6%), 하위 30% 미만이 30명(17.4%)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113명(65.3%), 없는 경우가 60명(34.7%)이었고,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28명(73.6%),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39명(22.4%),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4.0%)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20)

일반적 특성	항목	3년제	4년제
		전문대학(n=246) n(%)	대학교(n=174) n(%)
성별	남	20(8.1)	8(4.6)
	녀	226(91.9)	166(95.4)
나이*	20세 이하	111(45.1)	15(8.7)
	21세	92(37.4)	68(39.3)
	22세	14(5.7)	59(34.1)
	23세	12(4.9)	13(7.5)
	24세 이상	17(6.9)	18(10.4)
학년	2학년	121(49.2)	
	3학년	125(50.8)	91(52.3)
	4학년		83(47.7)
성적*	상위 30% 미만	86(35.0)	55(32.0)
	중위 30~70%	128(52.0)	87(50.6)
	하위 30% 미만	32(13.0)	30(17.4)
종교*	있다	127(52.0)	113(65.3)
	없다	117(48.0)	60(34.7)
건강 상태	건강하다	174(70.7)	128(73.6)
	그저 그렇다	60(24.4)	39(22.4)
	건강하지 않다	12(4.9)	7(4.0)

\* 결측치 제외

2. 학제별 대상자의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

학제별 대상자의 자존감을 살펴보면, 3년제 간호대학생의 3.19(±0.46)점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3.23(±0.37)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효능감은 3년제 간호대학생의 3.52(±0.57)점과 4년제 간호대학생의 3.53(±0.46)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인관계는 4년제 간호대학생이 3.68(±0.43)점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3.53(±0.5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3.06, p=.002), 전공만족도는 4년제 간호대학생이 3.11점(±0.36)점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3.01(±0.45)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55, p=.011).

임상실습만족도는 4년제 간호대학생이 3.17(±0.52)점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2.86(±0.6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5.48, p<.001),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항목 모두가 4년제 간호대학생이 3년제 간호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2].

표 2. 학제별 대상자의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 (N=420)

	3년제	4년제	t(p)
	전문대학(n=246) 평균±표준편차	대학교(n=174) 평균±표준편차	
자존감	3.19±0.46	3.23±0.37	1.10(.272)
자기효능감	3.52±0.57	3.53±0.46	0.17(.863)
대인관계	3.53±0.57	3.68±0.43	3.06(.002)
전공만족도	3.01±0.45	3.11±0.36	2.55(.011)
임상실습만족도	2.86±0.63	3.17±0.52	5.48(<.001)
실습내용	3.17±0.73	3.30±0.55	2.13(.034)
실습지도	2.58±0.78	3.08±0.67	7.04(<.001)
실습환경	2.74±0.86	3.06±0.74	4.17(<.001)
실습시간	2.66±0.86	3.08±0.89	4.86(<.001)
실습평가	2.99±0.82	3.24±0.85	3.07(.002)

3. 학제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학제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24세 이상이 21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42, p=.049).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3.02, p=.003), 4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52, p=.013).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임상실습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학제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 (N=420)

일반적 특성	항목	3년제	4년제
		전문대학(n=246) 평균±표준편차	대학교(n=174)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3.08±0.55	3.69±0.45
	녀	2.84±0.63	3.14±0.51
	t(p)	1.63(.104)	3.02(.003)
나이*	20세 이하 <sup>a</sup>	2.89±0.66	3.06±0.37
	21세 <sup>b</sup>	2.76±0.56	3.09±0.54
	22세 <sup>c</sup>	2.85±0.57	3.18±0.48
	23세 <sup>d</sup>	2.86±0.58	3.16±0.64
	24세 이상 <sup>e</sup>	3.23±0.71	3.47±0.43
	F(p)	2.42(.049)	2.13(.079)

b(e)

학년	2학년	2.93±0.68	
	3학년	2.80±0.57	3.08±0.51
	4학년		3.27±0.50
	t(p)	1.59(.114)	2.52(.013)
성적*	상위 30% 미만	2.84±0.54	3.25±0.55
	중위 30~70%	2.84±0.71	3.09±0.52
	하위 30% 미만	2.30±0.51	3.24±0.43
	F(p)	0.88(.417)	2.19(.115)
	t(p)	1.04(.300)	0.03(.973)
종교*	있다	2.89±0.66	3.18±0.52
	없다	2.81±0.59	3.17±0.49
	t(p)	1.04(.300)	0.03(.973)
	F(p)	1.82(.165)	0.21(.808)
건강 상태	건강하다	2.91±0.63	3.18±0.52
	그저 그렇다	2.73±0.60	3.12±0.48
	건강하지 않다	2.88±0.70	3.13±0.66
	F(p)	1.82(.165)	0.21(.808)

\* 결측치 제외

#### 4. 학제별 대상자의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학제별 대상자의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자존감( $r=.22, p<.001$ ), 자기효능감( $r=.25, p<.001$ ), 대인관계( $r=.32, p<.001$ ), 전공만족도( $r=.51, p<.001$ )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자존감( $r=.22, p=.003$ ), 자기효능감( $r=.23, p=.002$ ), 대인관계( $r=.36, p<.001$ ), 전공만족도( $r=.49, p<.001$ )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표 4].

표 4. 대상자의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 (N=420)

학제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3년제 전문대학	자기효능감	.65 (.001)			
	대인관계	.59 (.001)	.57 (.001)		
	전공만족도	.38 (.001)	.37 (.001)	.49 (.001)	
	임상실습만족도	.22 (.001)	.25 (.001)	.32 (.001)	.51 (.001)
	자기효능감	.45 (.001)			
4년제 대학교	대인관계	.41 (.001)	.50 (.001)		
	전공만족도	.44 (.001)	.24 (.001)	.37 (.001)	
	임상실습만족도	.22 (.003)	.23 (.002)	.36 (.001)	.49 (.001)

#### 5. 학제별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제별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년제 간호대학생이 대상일 때 종속변수인 임상실습만족도와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간에  $r=.22\sim.51$ 의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서, 모두 독립변수 투입 조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나이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에 차이가 있어서 나이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가 .50~.95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도 1.06~2.00으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잔차 분석을 위해 Durbin 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1.69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검증할 수 있어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나이만 투입한 모형 1은 1.9%의 설명력을 보였고( $F=4.75, p=.030$ ), 통제변수와 함께 독립변수까지 투입한 모형 2는 26.8%의 설명력을 보였다( $F=17.61, p<.001$ ). 모형 1에서 나이는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나( $\beta=.138, p=.030$ ), 모형 2에서 독립변수가 투입되자 나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전공만족도만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beta=.448, p<.001$ ).

4년제 간호대학생이 대상일 때 임상실습만족도와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간에  $r=.22\sim.49$ 의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여서, 독립변수 투입 조건을 만족시켰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학년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에 차이가 있어서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는데, 명목 변수이므로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공차한계가 .65~.97로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도 1.03~1.53으로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Durbin Watson 검정 결과 1.79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

차항의 정규분포를 검증할 수 있어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인 성별과 학년만 투입한 모형 1은 8.1%의 설명력을 보였고(F=7.50, p=.001), 통제변수와 함께 독립변수까지 투입한 모형 2는 31.9%의 설명력을 보였다(F=13.06, p<.001). 모형 1에서 성별과 학년은 유의한 영향 요인이었으나( $\beta=.213$ , p=.004;  $\beta=.174$ , p=.019), 모형 2에서 독립변수가 투입되자 성별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eta=.160$ , p=.015),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가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beta=.431$ , p<.001;  $\beta=.172$ , p=.030)[표 5].

표 5. 학제별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420)

학제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eta(p)$	$\beta(p)$
3년제 전문대학	나이	.138(.030)	.052(.362)
	자존감		-.040(.608)
	자기효능감		.060(.438)
	대인관계		.088(.252)
	전공만족도		.448(<.001)
	R <sup>2</sup>	.019	.268
	Adj R <sup>2</sup>	.015	.253
4년제 대학교	F(p)	4.75(.030)	17.61(<.001)
	성별(남)	.213(.004)	.160(.015)
	학년(4)	.174(.019)	.106(.110)
	자존감		-.079(.317)
	자기효능감		.032(.690)
	대인관계		.172(.030)
	전공만족도		.431(<.001)
	R <sup>2</sup>	.081	.319
Adj R <sup>2</sup>	.070	.295	
F(p)	7.50(.001)	13.06(<.001)	

#### IV. 고찰 및 결론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학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하므로,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하고, 임상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반응인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은 3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 4점 척도에서 3.19점, 4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 3.23점으로 다소 높은 정도였고, 자기효능감은 3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 5점 척도에서 3.52점, 4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 3.53점으로 높은 정도였는데, 이는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성자[4]의 연구에서 자존감이 3.10점, 자기효능감이 3.52점이었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4년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5점 척도에서 3.68점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3.5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승숙[13]의 연구에서 87.22점(5점 평균으로 환산 시 3.49점)보다 높은 정도였다. 4년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4점 척도에서 3.11점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3.0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4]에서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의 평균 3.51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5]에서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의 3.44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17점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2.8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3, 4년제 간호대학생을 모두 포함한 구혜자[7]의 연구에서 3.01점, 4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완주와 한지영[26]의 연구에서 3.04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행 연구[2][7]에서도 임상실습만족도는 4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에 3년제 간호대학생보다 높아서, 본 연구 결과와 일관되었다. 이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이 대학부속병원이나 재단실습병원보다 편의에 의해 선정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에 교육과정을 마치야 하므로 일부 분야의 실습시간 부족에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고려된다[6]. 따라서 임상실습교육의 질적 향상과 간호대학생의 실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상실습과정은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항목별로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 실습내용이 3.17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평가 2.99점, 실습환경 2.74점, 실습시간 2.66점, 실습지도 2.58점의 순이었다. 4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 실습내용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평가 3.24점, 실습지도 3.08점, 실습시간 3.08점, 실습환경 3.06점의 순이었다.

선행 연구[7][26]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환경이었고, 가장 낮은 영역은 실습시간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실습환경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실습기관에 따른 환경적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다. 실습환경은 실습만족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임상실습목표와 교육과정을 따르면서 학생 편의를 도모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습지도 항목의 만족도는 3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 가장 낮았고, 4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도 낮은 순위였는데, 이는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교육과 직접적인 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렵고[27], 병원 실무자가 학생 교육에 관여할 시간이 적으며, 단순한 간호기술 반복과 병실업무 위주로 임상실습이 운영되어[2] 간호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실습에 참여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박완주와 한지영[2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변수는 교수효율성으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임상실습지도자의 효율적인 지도와 지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교육자는 간호대학생의 의견과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이론을 임상실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고[3], 실습내용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교육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를 살펴보면, 3년제 간호대학생은 나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4년제 간호대학생은 성별과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24세 이상인 경우에 21세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정명실[27]의 연구에서 31~35세 학생의 임상실습만족이 30세 이하 학생보다 높았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고려된다. 나이가 많은 학생 대부분이 취업을 위해 다시 입학하여 간호학에 대한 열정이 많고,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여[27]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는데, 이는 선행 연구[7][27][28]와 관련되었다. 남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할 때 본인 의지가

높고, 졸업 후 타 학과에 비해 취업이 잘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29], 미래 간호사 업무에 관한 임상실습에도 더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4학년이 3학년보다 임상실습만족이 높게 나타났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실습 경험이 쌓이고, 이에 따라 적응과 만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선행 연구[30]에서도 학년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3년제 간호대학생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없어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는 3년제 간호대학생과 4년제 간호대학생 모두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 연구[31]에서도 자존감은 임상실습수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은 대학생의 현재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고,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켜서 학업성취 향상에 도움을 주므로, 임상실습과정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32]. 자존감이 높은 경우에 낮은 실습환경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실습과정을 잘 수행하고, 임상실습만족도 높아지므로[27],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중재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았는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일으켜서[10], 임상현장에서 실습 과업을 잘 수행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낮은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되므로[33],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가 적고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여 임상실습에도 만족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높았는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가족 지지 등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높았고[7],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높았던 선행 연구[12]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실습은 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은 실습시간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이끌게 되어[12],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간호 업무는 간호대상자 및 의료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임상실습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는 학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와 중등도의 순상관 관계가 있었는데, 높은 전공만족은 특정한 전공 관련 활동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하므로[29],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전공과 관련된 임상실습분야에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만족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높은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 즉 미래 간호사로서의 활동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25], 간호사 업무를 관찰하고 수행하는 임상실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전공만족도는 학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3년제 간호대학생의 경우 4년제 간호대학생보다 낮았는데,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가 진로나 직업으로써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이므로, 3년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환경적 특성인 외적 요인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등의 내적 요인을 강화한다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을 높일 뿐 아니라 내적으로 성숙한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 것 또한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및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로 26.8%를 설명하였고, 4년제 간호대학생은 전공만족도와 대인관계 및 성별이 임상실습만족도의 31.9%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의 주요 예

측 요인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마련하고, 참여를 격려하며, 흥미를 일으키는 학습법을 개발하는 등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이해와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관계를 촉진하여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은 4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임의표본추출로 표집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최은희,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5-21, 2009.
- [2] 한수정,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북돋우기(empowerment)와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6권, 제1호, pp.132-146, 2000.
- [3] C. M. L. Croxon, “Transfer of learning to the nursing clinical practice setting,” Rural and Remote Health, Vol.10, No.2, pp.1313, 2010.
- [4] 황성자,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05-213, 2006.
- [5] 정규숙, 내년부터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 운영, 간호사신문, A1, 2011.10.27.
- [6] 손영희, 강현숙, 박영숙, 한혜자, 권성복, 조경숙, 임난영, 김동욱, 김주현, 손행미, 이은희, 이여진, “3, 4년제 졸업예정 간호학생의 간호 역할에 대한 관찰 및 수행정도 비교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

- 13권, 제2호, pp.172-181, 2006.
- [7] 구혜자, “간호학생이 지각한 가족 지지와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2호, pp.205-214, 2008.
- [8] 이은자, 이여진, 김영숙, 조현숙, 김혜순, 김윤미, 박광희, 김지수, “학제별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비교”,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18-225, 2011.
- [9] 이경아, 정현희,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pp.213-226, 1999.
- [10]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119-215, 1977.
- [11] 김순례, 이중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98-106, 2005.
- [12] 신은주, “일 대학 간호학생의 간호효능감, 실습만족도 및 기본간호수술과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제5권, 제3호, pp.380-386, 2008.
- [13] 황승숙, “MBTI 기본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pp.61-73, 2004.
- [14]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95, No.3, pp.542-575, 1984.
- [15]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16] 전병재,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11집, pp.109-129, 1974.
- [17] M. Rosenberg, “Which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 Scientists*, Vol.16, pp.829-860, 1973.
- [18]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and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pp.663-667, 1982.
- [19] 홍혜영, *완벽주의 성향, 자기 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20] 문선모,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연구”, 경상대학교논문집, 제19집, pp.195-204, 1980.
- [21] S. P. Schlein and B. G. Guernsey,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71.
- [22] 이숙자,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제10권, 제2호, pp.41-52, 1980.
- [23] 이점덕, *프리셉터 지도를 받은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4] 김수관, 구영경, 정미애,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8호, pp.248-255, 2012.
- [25] 문인오, 이경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6권, 제1호, pp.83-90, 2010.
- [26] 박완주, 한지영,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가족지지가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구조방정식 모형구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7권, 제3호, pp.367-377, 2011.
- [27] 정명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실습수행도 및 실습만족도 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pp.60-68, 2009.
- [28] 박현주, 장인순,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4-23, 2010.
- [29] 이동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성정체감-성고정관념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0] 이혜숙, 김은주,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및 실습만족도의 차이 비교”, 동서

간호학연구지, 제14권, 제1호, pp.5-13, 2008.

- [31] 김영숙, 김명순, 조원순,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수행, 학업성취, 전공실습경험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8권, 제1호, pp.51-60, 2002.
- [32] 정미현, 신민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170-177, 2006.
- [33]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1권, 제4호, pp.621-631, 2002.

저 자 소 개

구 현 영(Hyun-Young Koo)

정회원



- 199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199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 석사)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 아동 및 청소년 간호, 간호교육

임 형 석(Hyeong-Seok Im)

정회원



- 2008년 2월 : 홍익대학교 금융보험학과(경영학 학사)
- 2012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2012년 8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성마오로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 성인간호, 중환자간호, 간호교육